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사랑방공동체 설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 예배 중에 성찬식과 공동생활 정회원, 종신회원 서약 및 서원순서가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서약하는 사람은 이어진, 종신회원은 장미숙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 예배 후에는 야외에서 공동식사 및 공동체 생일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 지난 21일(화) 제204회 평양노회가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 멧쟁이학교 도보여행을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진행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사랑방공동체 교회 설립 감사 (다함께)
강단을 꽃으로 : 김형배 집사 · 오강자 권사 가정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7 호

2026년 4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열왕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요즘 성서일기 진도가 열왕기 하를 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업적에 따라 기록의 분량이 방대하기도, 때로는 허무할 정도로 짧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열왕기를 보면서 하나 어려운 점은, 두 왕국에 같은 이름을 쓰는 왕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여호아스), 여호람, 아하시야등 왕의 이름이 같거나, 여로보암처럼 조상의 이름을 딴 경우가 있어서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남 유다가 다윗의 혈통으로 단일 왕조를 이어간 반면, 북 이스라엘은 반역과 역모로 무려 9개의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정권이 끊임 없이 바뀌다 보니 통치 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막을 내린 왕이 있는가 하면, 41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한 이도 있습니다.

열왕기가 왕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 유다에서는 비교적 선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신앙개혁의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요시아, 신앙교육에 힘썼던 여호사밧 그리고 우상을 타파한 아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당시 만연했던 우상숭배를 단호히 물리쳤다는 점입니다.

반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외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있던 뿌리깊은 우상숭배를 근절하지 못했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반역으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우상숭배의 고리만큼은 끊어내지 못하고 변함없이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작가인 루드비크 스타시악이 그린 사탄의 우화(Allegory of Satan, 1900년경)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을 공포스럽

게 그린 것이 아니라 우아하고 여유로운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자리한 의자 위에 앉아서 왼손에는 통치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긴 홀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아주 가볍게 금화 한 닢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겹옷과 황금빛 자수가 놓인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꽤나 여유로운 얼굴로 입에는 냉소를 잔뜩 머금고 관객을 지극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등 뒤에 드러난 악마의 날개가 아니면, 사탄이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외모입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있는 금화 상자 아래에는 여러 개의 해골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왕관을 쓴 것도 있고 귀족들이 쓰는 화려한 모자를 쓰거나 중세 기사와 같은 투구를 쓴 해골도 눈에 뜨입니다. 학자나 귀족의 모자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금화가 한 줄로 사탄의 발 아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동전을 하나씩 줍다보면 어느 샌가 사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왜 왕들은 우상숭배를 끊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야훼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 재물이라는 동전을 하나하나 줍다보면 우리 역시 사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신앙공동체와 공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모여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누구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공동체적인 삶이며, 구체적인 표현이 공동생활입니다. 우리는 저희에게 주신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쉰 사이에 놓고
 “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 ”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1 379 / 585
 기도 : 조민아 집사
 성경 : 열왕기하 15장
 제목 : 점차 쇠락하는 이스라엘

1. 내용: 유다의 두 왕이 바뀔 동안 이스라엘은 다섯 왕이 바뀌었다(What)
 <문단구분>

- 1~7절 유다 왕 아사랴(웃시야)
- 8~12절 이스라엘 왕 스가랴
- 13~15절 이스라엘 왕 살룸
- 16~22절 이스라엘 왕 므나헴
- 23~26절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 27~31절 이스라엘 왕 베가
- 32~38절 유다 왕 요담

2. 의미: 왕은 바뀌었으나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Why)

- 1) 반역이나 역모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
- 2) 지도자의 죄는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 죄이다.
- 3) 잘못된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한다.

3.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이자. (How)

- 1)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자
- 2) 하나님의 경고에 바르게 응답하자
- 3)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자

나의 주님, 나의 고향, 나의 사랑방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4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엔 2007년의 그날이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했던 그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없이 새로운 터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후로 보낸 19년의 세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굽이굽이 험한 길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기도가 나오지 않던 밤도 있었고, 공동체의 역경 앞에 마음 졸이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저보다 앞서 행하며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셨고, 때로는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저를 품에 안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곁에 계신 공동체 식구들 덕분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오늘의 우리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 묻는다면, 이제는 주저 없이 이곳 '사랑방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태어난 곳은 제각각 달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몸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한 공기, 공동체식구들의 따뜻한 눈빛... 제 영혼이 쉴 수 있는 **'제2의 고향'**인 이곳이 있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42년의 역사 위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신발 끈을 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고향 같은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공동체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식구들, 우리 오래도록 이 길을 함께 걸어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비움사랑방 최창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15 : 5-7 인도자
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438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사무엘기상 7 : 2-12 설교자
210 사랑방
“에벤에셀 감사에 앞서는 미스바 회개” 정태일 목사
< 정회원 서약식, 종신회원 서원식, 성찬식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08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석용범 박영선 / 봉헌위원 : 한호남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사랑방공동체를 42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공동기도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성숙한 저희가 되도록 회개의 마음도 주십시오. 아멘.

에벤에셀 감사에 앞서는 미스바 회개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
랏여아림에 오래 머물고 있고, 백성들은 주님을 사모하였습니
다.<2> 사무엘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였고, 블레셋이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
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
습니다.<12>

진정한 감사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 에벤에셀의 의미는 하
나님이 도우셨다는 신앙고백과 그에 따른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앞부분에 미스바의 회개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는
현 상황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42주년,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사무엘상은 진정한
감사에 전제되어야 하는 회개의 예로 사울 왕을 소개합니다. 즉 사
무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을 꾸짖을 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하였습니다.<15:22-23> 사랑방공
동체 설립 42주년,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먼저
고집을 회개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한미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주에 뜬은 쭈욱을 가지고 쭈욱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만든 반죽을 떡살에 찍어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손이 지난 번 꽃전 만들 때보다 빠르고 잘 만드는 노련한 손이 되어있었습니다.

꾸러기들이 기다리던 베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학교에서 잠을 자게 되어 침구류와 먹을 거 그리고 베개와 인형을 들고 평소와 같이 학교에 모였습니다. 베개의 날이라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하는 공룡 전시도 보고, 자연예배당에서 밀가루 20kg을 가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찌나 재밌게 노는지 엄마 보고 싶다거나 집에 가고 싶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모종을 사러 나갔습니다. 꾸러기 밭에 심을 방울토마토와 가지 그리고 약간의 쌈채소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모종가게 사장님이 꾸러기들이 예쁘다고 쌈채소를 계속 선물해 주시며 꾸러기 밭이 생각보다 많은 쌈채소를 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에 편안히 애니메이션을 보며 베개의 날을 마쳤습니다. 우는 친구 한 명 없이 모두가 아주 씩씩하고, 즐겁게 베개의 날을 잘 보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화창한 날씨 속에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트램펄린을 신나게 타며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쁜 시간이었습니다.

호수에 있던 가람이가 24일날 학교에 왔습니다. 언니 오빠동생들 또 졸업한 언니 오빠들까지 와서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했는데 벌써 적응 끝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가람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금요일 3교시에 4,5학년 친구들이랑 청소년증 신청을 위해 소흘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송우리 장날이라 화분에 심을 예쁜 꽃을 하나씩 골라 사고 학교에 와서 화분에 예쁘게 심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떡을 맛나게 나눠 먹으며 왔습니다.

토요일 4시에 어린이학교 학부모모임과 7시에 학부모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가득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캠프 조별 모임에, 회장단 공약인 체육대회와 멋 부리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린이와 멋쟁이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신아영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깨끗하게 완치되시길 기도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이번 주는 1학기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공동심화학습 <보드게임, 규칙이 상상을 만날 때> 주제가 7주 동안 진행되어서 대단원에 이르렀습니다. 작품들이 모두들 멋지고 재미있어서, 멋쟁이들의 상상력과 노력에 크게 감탄하며 즐겼습니다.

열린수업에서는 도보여행을 위한 예행연습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길을 걸으며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연습하고, 또 체험해보는 중요한 한 때이지요.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면 긴장감보다 자신감이 커지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집으로 헤어지기 전에는 교장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학년도 미국에서 축하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은 선물을 전달하며 박수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도보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육체와 정신, 공동체 성과 하나님나라 모두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기간이지요. 모두가 안전 속에서 좋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땅에 있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문이 마음에 쏙 다가온다.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되겠다고 고생고생하며 간호사 수련과정을 마치고 이제 간호사생활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기우이겠지만 “힘든 간호사생활 잘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또한 앞서기도 합니다.

어느 병동 간호사들의 이야기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삶의 방향을 헤아려봅니다. 어느 병동에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험악한 조직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 간호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업무도 많았지만,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고, 실수한 후배에게는 혼내기보다 조용히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환자에게도 단순히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처음에는 그 모습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실수를 숨기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들도 “이 병동은 뭔가 다르다” 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병동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사랑방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는 사랑이 선택되고 서로간의 상처 속에서도 사과와 용서로 사랑과 회복을 선택하는 사랑의 삶 즉,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삶 가운데 상처 주는 말, 표현 대신 서로 존중하는 말들로 사랑을 심어간다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보듬고 사랑을 나누면서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누리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윤호중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90장, 295장
성경 : 열왕기상 13장
말씀 : 온전한 순종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의 평화를 위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평양 노회를 위한 기도>
* 제 204회 노회가 화요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 평양 노회와 노회에 속한 교회들과 항암 치료 중인 조영혜 실장의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설립기념주일과 서원식을 위해
 - 2) 멋쟁이학교 도보여행을 위해
 - 3)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봄꽃들로 공동체 마당은 한결 아름답고 풍성해졌습니다. 각양의 꽃들을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십자가 동산과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정리에도 힘을 쏟아 더욱 보기에 좋습니다.

교육관 증축 공사는 내부 페인트 작업과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공간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설립기념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주말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